

제3장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제1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개 관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3. 개성공단 개발사업
4.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5.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및 임남댐 공동조사
6.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7. 대북 식량차관 제공

제2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 교역
2. 위탁가공교역

제3절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1. 개관
2.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3.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4. 다양한 남북공동행사 개최

제4절 남북한 인적 교류

1. 남북한 왕래
2. 북한주민접촉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제3장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그 동안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으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여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경협 활성화 조치 등 교류협력을 근간으로 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게 됨으로써 활성화 차원을 넘어 안정 구축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교류협력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있어 국회에 사전보고를 충실히 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에도 역점을 두어 왔다.

2002년에는 서해교전 등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우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대북 식량차관 제공 등 당국과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경제협력이 추진되었다. 사회문화교류 또한 북한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평양 현지 생방송 실시 등 다각적인 성과가 있었다. 한편, 4개 경협합의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교류협력 추진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제1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개 관

가. 경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52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25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18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있었다. 2002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IMRI 등 2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1) 제조업분야

2000년 이후 일부 제조업분야에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제품 생산 및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녹십자는 2001년 7월 유로키나제 반제품을 최초로 반입한 이래 2002년에는 11차례에 걸쳐 약 17만불 가량의 제품을 반입하였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준공하고 「휘파람」 자동차 129대를 생산하였으며 자동차 전시장, 주유소 및 광고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물값 조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태창의 금강산샘물개발사업은 2002년 9월 북한과 재개에 합의하여 앞으로 육로운송을 통한 사업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2) 정보기술(IT) 분야

2000년 3월에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삼성전자의 5개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어, 2002년 8월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통해 13개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를 추가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하나비즈닷컴, 엔트랙 등의 업체가 북한과 IT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도 IT분야에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농·어업분야

농·어업분야 경제협력사업은 인적·물적 교류의 유발효과가 크고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바람직한 협력형태이나, 북측의 농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옥수수재단」은 옥수수신품종 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2002년말까지 27차례나 방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임가공사업에 이어 인삼 및 잎담배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면서 1회용 주사기공장 건립 지원 등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지역 영농사업은 2000년 2월 첫 농산물을 출하한 이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품질도 좋아지고 있으나, 금강산관광객의 감소로 잉여생산물의 판로개척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00년 12월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어업분야에서 협력을 제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물의 단순교역과 달리 협력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승인취소된 기업>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우 (합영)	삼천리 총회사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남포	512만불	'92.10.5 ('95. 5.17)
고합물산 (합영,합작)	광명성 총회사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남포,나진, 선봉,평양	686만불	'95. 5.17
한일합섬 (합영,합작)	조선은하 무역총회사	웨타, 봉제, 방직 등 4개 사업	”	980만불	'95. 6.26
국제상사 (합영,합작)	”	신발	”	350만불	'95. 6.26
▲ 녹십자 (합작)	광명성 총회사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평양 통일구역	311만불	'95.9.15 ('97.11.14)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대외경제협력추 진위원회	시멘트 싸이로 건설	나진,선봉	300만불	'95. 9.15
동룡해운 (단독투자)	해양무역회사	하역설비(크레인 등)	”	500만불	'95. 9.15
삼성전자 (합작)	조선체신회사	나진선봉 통신센타	”	700만불	'96. 4.27
▲ 태 창 (합영)	릉라888무역총 회사	금강산 샘물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불	'96.4.27 ('97.5.22)
대우전자 (합영)	삼천리총회사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불	'96. 4.27
▲한국전력 공사	원자력총국	경수로건설지원사업	신포	4,500만불→ 11,430.8만불	'96. 7.15 ('97.8.16→ '99.8.10변경)
▲ 미흥식품 (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	청진,함흥, 원산,남포	47만불	'97. 5.22 ('98. 3.13)
* 신일피혁		피혁, 의류봉제	나진,선봉	300만불	'97. 5.22
한 화 (합작)	청운산 무역회사	PVC장판 제조	평양,남포	90만불	'97. 5.22
LG전자 /LG상사 (합영)	광명성 총회사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평양	450만불	'97. 5.22 '97.10.14 (변경승인)
▲ K T	체신성	경수로 건설 통신 지원사업	신포	14만불	'97. 8. 1 ('97.8.1→ '01.2.5, '02.5.28변경)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삼성전자 (합영)	조선체신회사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 설비생산	나진,선봉	500만불	'97. 8. 1
코오롱상사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 · 생산	평양,남포	400만불	'97. 8. 1
신 원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의류 · 봉제사업	평양	100만불	'97. 8. 1
파라우수산 (합영)	조 선 은 파 산 무역상사	수산물 생산 · 가공	원산,해주	300만불	'97. 8. 1
금오식품 (합작)	조선은하무역 총회사	냉면 · 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 8. 1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대 외 경 제 협 력 추진위원회	나진 · 선봉지대 시범공 단 조성	나진,선봉 (유현지구)	.	'97.10.14
대상물류 (단독투자)	”	나진 · 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 · 운영	나진,선봉 (동명지구)	420만불	'97.10.14
삼천리자전거 /LG상사 (합영)	광명성총회사	자전거 조립 · 생산	나진, 선봉	800만불	'97.10.14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	가리비 양식 · 생산	나진, 원산	65만불	'97.10.14 ('98. 8.28)
▲한국의환 은행	경 수 로 사 업 대 상국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금호	.	'97. 11.6 ('97.11.6)
▲(주)아자커 뮤니케이션 (합영)	금 강 산 국 제 관 광총회사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평양, 기타 지역	편당 25만불	'97.11.14 ('98. 2.18)
(주)에이스 침대(합작)	청류무역회사	침대 및 가구 제조 · 판매	평양 락랑 구역	425만불	'98. 1. 9
롯데제과 (합영)	광명성총회사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평양	575만불	'98. 1. 9
(주)광인 (단독투자)	대 외 경 제 협 력 추진위원회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 부벽면 부착광고 등)	평양, 나진, 선봉	250만불	'98. 2. 18
안 흥 개 발 (합작)	조선56무역 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 3.13
▲두레마을영 농조합법인 (합작)	라선경제 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선봉	200만불	'98. 4. 8 ('98. 7.27)
▲ 국제 옥수수재단 (조사 · 연구)	농업과학 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 품 종 생산력 검정시 험 및 재배적지 확정, 신 품 종 슈퍼옥수수개발 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 6.18 ('98.6.18→ '01.6.20변경)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주세원커뮤니케이션		북한올림픽위원회스폰서접대행		미정	'98. 8. 6
▲(주)현대상선, 현대건설,금 강개발산업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98.9.7)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99.1.15)	금강산	9,583만불 →1억33만불('99.1.15) →1억8,739만불('01.1.20) →20,532.9만불('03.1.10)	'98. 8. 6 ('98.9.7→ '99.1.15변경 '99.4.16변경 '01.1.20변경 '01.6.23변경 '03.1.10 변경)
▲(주)코리아 랜드(합영)	묘향정제연합체	북한부동산개발(임대· 분양) 및 컨설팅업	평양	60만불	'98. 8.28 ('98. 8.28)
*성화국제그룹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지역내 백화점운영	나진,선봉, 평양	190만불	'98. 9.14
*아이엠시스템		방송용 광고제작			'98. 10.17
▲백산실업 (합영)	선봉군 온실 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현대시 스콧, KT, 온세통신	금강산국제관 광총회사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 신험력사업	금강산 관 광지역 및 평양	13만불	'98.11.11 ('98.11.11→ '00.11.20 변경 '01.10.4 변경 02.5.28변경)
(주)해주(합작)	광명성총회사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 1. 8
▲(주)평화자 동차(합영)	조선련봉 총회사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남포	5,536만불	'99. 8. 31 ('00. 1. 7 →'00.10.21변경 '02.2.20변경)
▲한국전력공사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TKC)	금호지구	40.8억불 (PWC금액 포함)	('99.12.15)
▲삼성전자	조선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북경	72.7만불 →154.4만불 →226.7만불	'00. 3.13 ('00. 3.13→'01. 6.16 변경 '02.8.21변경)
▲(주)하나컴 컴(합영)	평양정보센터	남북 프로그램 공동 개발	단동	200만불	'01. 4.28 ('01. 7.18)
▲(주)엔트랙 (합영)	광명성총회사	정보기술·공동제품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고려정 보기술센터」 건립	평양	400만불	'01. 4.30 ('01.8.22)
▲(주)G-한신	광명성총회사	북한내 유리제품 생산시 설 설립운영	평양	290만불	'01. 7.18 ('01.10.16)
▲(주)아이엠 알아이	삼천리총회사	발포성수지 생산공장 설립	평양	70만 불	'01.10.16 ('02.8.7)
▲국양해운	개선무역 총회사	해상운송사업 및 하역시 설개선사업	남포	61.9억 원	'01.11.21 ('01.11.21)
▲(주)훈넷	범태,조선장생 무역총회사	인터넷 게임S/W 공동개 발 및 서비스	평양	20만불	'01.12.29 ('01.12.29)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국가핵안전감 독위원회	경수로 건설 관련 핵안 전 규제사업	-	-	'02. 3. 7 ('02. 3. 7)
(주)서전어패럴	광명성총회사, 조선봉화총회사	피복제조	남포	41.2만불	'02. 5.13
한국토지공사, (주)현대아산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민경 련,삼천리총회사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	개성	18,500만불	'02.12.27

나. 해운 · 항공 · 통신 협력

2002년 12월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간 교역물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간 · 부산-나진간, 금강산 관광을 위해 속초-장전간, 경수로 인력 수송을 위해 속초-양화간 등 4개 항로의 정기선이 운항중에 있다.

2002년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1,827회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는 798회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는 1,029회로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다. 우리 국적선의 운항횟수는 278회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2002년 남북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1,092,101톤으로 전년대비 70.2%가 증가하였다.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남→북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3,811
북→남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5,174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8,985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남북 직항로를 최초로 운항한 이후 2000년 43회, 2001년 19회가 운행되었으며, 2002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크게 증가하여 남→북 33회, 북→남 34회, 총 67회가 운행되었다. 특히 경수로사업을 위해 양양-선덕간 항공로가 개설되어 2차례 운행되기도 했다.

<남북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2000	2001	2002	계
남→북	20	8	33	61
북→남	23	11	34	68
계	43	19	67	129

남북간 통신망 연결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

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해 남북 상황실간에 2회선의 직통전화가 개설되었고,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통신합의서가 체결되었다.

2002년 12월말 현재 남북한간에 직접 연결된 전화는 31회선이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27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된다. 제3국을 경유한 간접연결전화는 경수로사업용 16회선, 금강산 관광용 8회선 및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용 3회선이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부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 현황>

(2002.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12.21
관문 점 공동 경비 구역 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관문점경유)	2	1997.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 2.17
남북군당국간 직통전화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2. 9.24
합	계	31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 현황>

(2002.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1997. 8. 4
		2	2000. 7.26
		6	2001. 5.23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정~장전	6	1998.11.17
		2	1999. 5.18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정~장전	3	2000.11.21
합	계	27	

2.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남북간 철도 · 도로 연결사업은 분단된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경의선 · 동해선 등 남북중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될 경우 한국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간 철도 · 도로 연결사업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정부는 우선 2000년 8월 8일,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철도 · 도로연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마쳤다. 이어 2000년 9월 18일 우리측 지역 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 철도·도로의 비무장지대 공사를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개최기로 하였다. 이어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비무장지대 공사와 관련한 군사보장합의서’를 교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1년 2월 11일 북측은 ‘행정상의 이유로 이 합의서의 서명·교환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내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측은 비무장지대 이외 지역의 공사를 진척시켜, 2001년 12월말 경의선 철도는 문산역에서 도라산역까지 10.2km, 도로는 통일대교 북단에서 비무장지대 앞까지 3.3km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2002년 2월 12일, 정부는 설날을 맞이하여 실향민의 망배행사를 도라산역에서 가졌으며, 2월 20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시 한·미 정상은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남북간 평화정착과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의지를 전세계에 표명하였다.

2002년 4월 11일부터 일반인과 외국인에게 도라산역까지 열차를 타고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현재 1일 평균 200여명이 도라산역을 찾고 있다. 지난 1950년 경의선 운행이 중단된 이후 52년만에 재개된 임진강역과 도라산역 사이의 기차 운행은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한편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으로 인하여 남북간 연결공사가 늦어지던 단계에서 우리측 제의에 따라 대통령 특사가 방북(2002.4.3~4.6)함으로써 남북간에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사는 방북 기간중 남북이 동부지역에서 새롭게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서부지역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연결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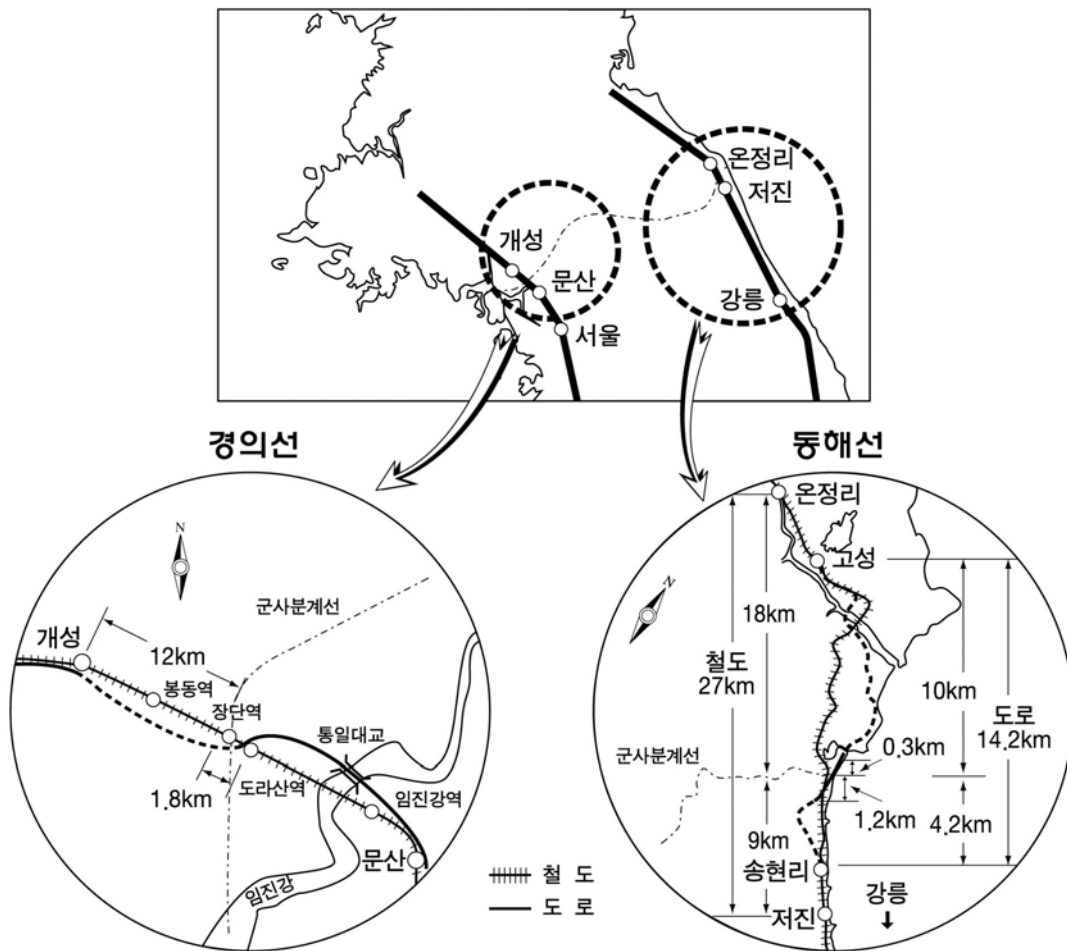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8.27-8.30, 서울)에서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착공식 개최 일자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시기에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철도·도로의 구체적 연결 시기는 다음과 같았다. 경의선 철도는 2002년 말, 도로는 2003년 봄, 동해선 철도의 저진-온정리 구간과 도로의 송현리-고성 구간은 2003년 9월, 금강산육로관광 등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는 2002년 11월말이다.

2002년 9월 18일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경의선 비무장지대 통과지점인 도라산역 부근 남방한계선 제2통문 앞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실향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고, 동해선은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정세현 통일부장관, 실향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각각 착공식 행사를 하였다.

북측은 경의선 개성 남쪽 봉동역에서 조창덕 내각 부총리 등 2,500여명이 참석하고, 동해선 고성군 금강산청년역에서 홍성남 내각 총리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 착공식 행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 착공식 행사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선언적 단계」에서 「실천적 단계」로 변모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의 장벽이 제거된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



※ 경의선 공사 구간

- ▶ 철도 : 13.8km(도라산역 – 장단역 : 1.8km, 장단역 – 개성 : 12km)
- ▶ 도로 : 13.8km(도라산역 – 군사분계선 : 1.8km, 군사분계선 – 개성 : 12km)

※ 동해선 공사 구간

- ▶ 철도 : 27km(저진 – 군사분계선 : 9km, 군사분계선 – 온정리 : 18km)
- ※ 저진 – 강릉 구간 118km(7년 내외 소요)
- ▶ 도로 : 14.2km(송현리 – 군사분계선 : 4.2km, 군사분계선 – 고성 : 10km)

※ 동해선 임시도로 : 1.5km(군사분계선 이남 : 1.2km, 군사분계선 이북 : 0.3km)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개요>

노선	종류	규모	구 간	거리 (km)
경의선	철도	단선	개성역(북)-도라산역(남)	17.1
	도로	4차선	개성공단터(북)-도라산역(남)	8.8
동해선	철도	단선	온정리(북)-저진(남)	27.5
	도로	2차선	고성(북)-송현리(남)	14.2
	임시도로	1차선	고성-군사분계선	1.5

한편, 2002년에 들어 수 차례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그 동안 서명 ·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군사보장합의서에 대해 다시 논의하였고, 마침내 2002년 9월 17일 이를 서명 · 교환함으로써 남북간 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었다.

41개 조항의 군사보장합의서는 비무장지대에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폭 250m(경의선), 100m(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고 지뢰제거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12월 3일 동해선 비무장지대와 12월 6일 경의선 비무장지대의 남북 연결구간에서 지뢰제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군사보장합의서 발효와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라는 측면 뿐 만 아니라 ‘남북간에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다.

이어 개최된 남북 철도 ·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002. 9.13-17, 금강산)에서는 연결도로의 구조, 공동측량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해 필요한 「자재 · 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요지》

1. 자재·장비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2.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주항 등으로 한다.
3. 자재·장비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 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관금액과 임대기간은 쌍방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4. 자재·장비의 인도·인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자재·장비인도회사를, 북측은 자재·장비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5. 북측은 자재·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들 인원 및 선박·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10.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

우리측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에 따라 북측 연결구간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자재·장비인 굴착기, 트럭, 시멘트 등을 10월 19일 설봉호를 통해 처음으로 북측 장전항으로 전달하였고, 2002년 12월말 현재 동·서해로 각각 11항차의 자재·장비를 전달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2차 실무접촉(2002.11.18~20)에서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접속지점 및 계획고 등에 합의하였다. 이어 접속지점 및 계획고의 확정을 위한 공동측량을 11월 26일 동해선에서, 11월 29일 경의선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 측량전문가 20명이 함께 공동측량을 통해 정한 접속지점은 앞으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제2, 3차 실무접촉을 통하여 철도·도로가 연결된 후 열차·차량이 원활히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남북간 열차 및 차량운행합의서를

북측과 협의하였다. 차량운행합의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였으며, 열차운행합의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다. 차량운행합의서는 남북간에 개통되는 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차량의 남북왕래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3년 대통령 특사방북(1.27~29)에서는 경의선 철도연결 공사를 2월중 완료하기로 합의하여 남북간 철도연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요지》

□ 기본 원칙

- 쌍방은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의 신변안전 및 편의보장
-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쌍방은 상대측 운전사와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

□ 차량의 운행절차 및 방법

- 상대측 지역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함.
-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법규,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위원회에서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함.
- 쌍방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음. 취소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운전사와 차량을 돌려 보냄.
-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지이유가 소멸된 경우 운행재개 허용

□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 쌍방은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 보장
- 차량사고의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고,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함.
- 합의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조사결과는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함.

철도·도로를 이용한 인적·물적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활한 세관(C)·출입심사(I)·검역(Q)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 실무자로 경의선 출입관리시설(CIQ)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계획마련과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남북간을 왕래하는 인원, 물자의 출입, 세관, 검역에 대비하여 본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CIQ시설을 통일전망대 부근에 설치하였다. 경의선은 도라산역사 내에서 CIQ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2002년말 현재 보완 공사중에 있다.

한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은 지난 50여년간 인적왕래가 없었던 지역으로서 정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및 생태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생태계보전공동조사단’을 발족하였다. 이 조사단은 지형·지질·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 동·식물 생태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간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이었던 물류비를 크게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계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축으로 부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철도망이 연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로의 연계수송도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북한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 내지 2억 달러의 통과운임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연구기관 등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hub)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동해선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값싸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 일본 등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돼 유럽연합(EU) 같은 거대한 경제권 구축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성공단 개발사업

우리기업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그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북한 개성직할시의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 약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우선 1단계 100만평 규모의 시범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개성공단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크게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 기대효과>

구 분 (건설기간)	면 적 (만평)	유치 업종	업체수	고용인원	연간수출 (백만불)	연간북측이득 (백만불)
제1단계 (착수후3년)	100	노동집약형	250	2.3만명	2,416	49
제2단계 (착수후 5년)	200	경공업, 중화학	450	2.4만명	3,372	59
제3단계 (착수후 8년)	500	첨단산업	900	5.3만명	9,631	149
합 계	800		1,600	9.9만명	15,419	257

* 출처 : 국토연구원 용역결과(공단 활성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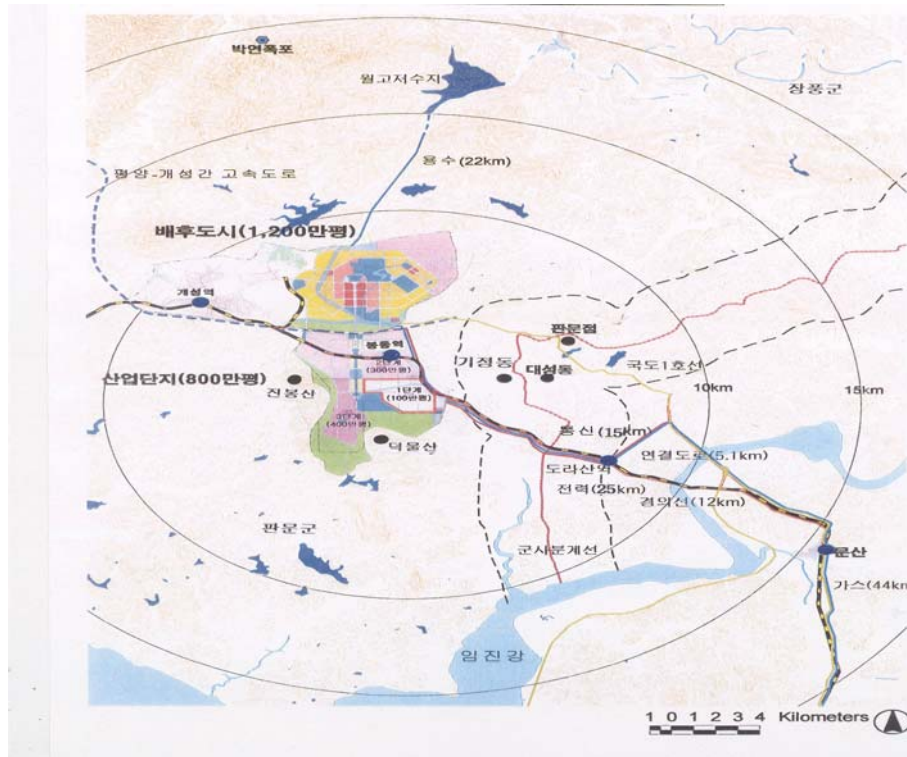
개성공단 개발은 1999년 10월 1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의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비롯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현대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의향서 수준의 합의를 채택하였다.

현대는 2000년 8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9일에는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합의하였으며, 현대-아태간에 관련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11월에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협약을 맺어 공단개발을 공동으로 시행기로 합의하는 한편, 개성공단 예정지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2000년 12월 2일에는 개성공단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2001년 1월 금강산지역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개성공단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개성공단개발 구역도>



한편, 2001년 9월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전반적인 남북관계 소강국면과 맞물려 정체기를 맞았다.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대통령 특사 방북시 개성공단 건설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개성공단 개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2002년 8월 말에 개최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는 개성공단 건설이 연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10월 하순에 개최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과 11월 초순에 개최된 제3차 경추위에서는 연내 착공을 재확인하는 한편 실무적 사항논의를 위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 개최에 합의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과 경추위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된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는 1단계 100만평 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기로 합의하였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실무접촉에서는 12월 26일~30일 사이에 착공식을 거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 통관·통신·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하여 착공을 위한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요지

-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간주,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내용 비밀 보장
- 북측은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며, 세부절차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확정
- 우편 및 전기통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련법 및 국제협약·국제관행을 존중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상호 제공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요지

-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세관을 공업지구내에 설치
- 차량을 지정된 기관(남측:세관, 북측: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
- 반출입시 사전에 공업지구 세관에 신고서류를 제출, 출입관세 및 수수료 면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요지

- 검역대상 물자·검역기준 및 검역방법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양측 당국이 협의하여 확정
- 북측은 검역소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에 협조 가능
- 검역대상물자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지구검역소에 검역대상물자를 입고시키고 검역신청

남북당국간 협의의 진전에 따라 사업자간 논의도 재개되었다.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리고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북측이 제정하기로 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현대·한국토지공사 및 아태·민경련간 4자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들은 12월 21일 재차 방북하여 착공식 및 하위규정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개성공단 개발사업 실현이 가시화 되어가자 우리측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2000년 11월 체결한 협약서를 변경하여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기존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하였다. 아울러 2002년 12월 27일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북측 역시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간 합의 및 협조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2002년 11월 27일 우리측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였다. 총 5장 46조와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관리, 기업 창설·운영, 분쟁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자 추천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구성하고 이 기관이 공단관리운업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당국과 사업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단 개발·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내에 기업설립 등 경제활동 자유 보장, 투자자 재산 및 상속권 보호, 토지 임대·양도 허용 등을 규정하여 개성공단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경의선 임시통행로 개통 및 착공식 관련 편의제공 등에도 성의를 나타냄으로써 2002년 12월 30일 착공식에 합의하였고 양측 사업자들이 착공식 준비에 들어갔으나 군사분계선 통과에 관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체결되지 못하여 12월 30일 착공식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적 보장문제 타결(2003.1.27)에 따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착공식 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업자간 하위규정 협의 및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신뢰형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미지를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와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해 온 바가 크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0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금강산관광사업에관한계약서」를 체결하고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를 첫 출항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 「봉래」·「풍악」·「설봉」호가 추가투입되어, 2000년에는 월평균 15,000여명 이상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단조로운 관광일정,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객이 월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설봉호」 1척만 운항하게 되었다.

현대그룹의 어려움 등과 함께 금강산관광이 침체에 빠지면서, 현대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매월 1,200만불씩 지급하던 관광대가를 관광활성화시까지 관광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로 관광 실시와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관광활성화 조치에 합의하였다.(2001.6.8)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2001. 6.20)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아 현대가 건설한 금강산내 시설물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육로관광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금강산관광 제1차 당국회담이 개최되는 등 당국간 그리고 사업자간 관광활성화조

치 이행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2년 1월에는 관광객이 1천명 수준으로 줄어, 더 이상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조치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 온 측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통해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이를 남북화해협력 증진, 분단고통 완화, 통일교육효과 제고 등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2002년 1월 23일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월 31일에는 관광공사에 대출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2월 20일에는 금강산지역에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를 허용하였다.

또한 3월 28일에는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통일부고시)을 제정하여 학생·교사·이산가족·국가유공자·장애인·통일교육강사 등의 금강산 관광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지원조치가 실시된 이래, 2002년 4월부터 학생·교사 등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사업자는 학생 등의 단체관광객이 늘어나는데 맞춰, 「금강빌리지」·「온천빌리지」 등 단체용 숙소를 확충하고 관광선 운항횟수를 늘렸으며 여름철에는 야영장과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46.4%가 증가한 총 84,727명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등 관광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나.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추진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실시 등 관광활성화 조치 이행을 위해 당국간, 사업자간 협의가 계속되었다. 2002년 9월에는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이 개최되어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시시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역할에 대한

입장차이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정부와 사업자가 북측의 관광활성화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가운데, 2002년 11월 13일에는 북측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정령 제3,413호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11월 25일 방송을 통해 법 제정 사실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 강원도 고성·해금강·삼일포·통천 일대를 금강산 관광지구로 지정하고 지구의 운영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간소한 출입 절차 및 투자·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금강산관광지구 법에 따라 금강산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현대아산은 금강산지역에서 50년간 토지이용권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 상반기 중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02년 12월 11일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현대는 북측 아태와 2002년 12월 중 육로관광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곧이어 시범 육로관광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해선 임시도로의 비무장지대 통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군사당국간 협의에 시간이 사전답사와 시범 육로관광은 2003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003년 1월 27일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동·서해 지구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2003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답사가 이루어졌다. 사전답사는 남북출입관리연락사무소(CIQ)운영, 비무장지대 출입절차, 소요시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 아산·한국관광공사·정부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이어 시범적인 육로관광이 2003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가하여 실시됨으로써 육로관광의 물꼬를 텃다. 금강산 임시도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판문점 이외의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최초의 남북간 도로라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특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육로를 이용한 금강-설악권 연계관광이 실시되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관광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정부는 사업자의 개발계획이 금강산의 환경보전 및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강산관광지구법 요지〉

- ☐ 지구성격 : 북한 법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국제적인 관광 지역
- ☐ 지 역 : 고성군 고성읍·온정리·성북리·삼일포·해금강 통천군 일부
- ☐ 적용범위 : 남한·해외동포·외국인의 관광, 관광업, 기타 경제활동
- ☐ 운영체제
 - 「중앙관광지도기관」: 북한 독립행정기관, 구성 등은 미정
 - 관광지구관리기관 및 개발사업 지도, 관광지구법규 시행세칙 작성 등
 - 「관광지구관리기관」: 개발사업자, 중앙관광지도기관 추천인사로 구성
 - 관광계획 작성·관광운영, 투자유치 및 기업창설 승인·등록·영업허가, 남한 출입인원·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등
- ☐ 개발업자의 권한
 - 개발업자는 토지이용증을 받고, 일정기간 관광지구 개발 및 관광사업 (북한 국토 환경보호성이 현대에 2052.11.13까지의 토지이용증 발급)
 - 개발업자의 개발·영업활동 세금면제, 사업권의 양도·임대 허용
 -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 총계획」 수립, 중앙지도기관은 1월내 심의
- ☐ 관광객 출입절차·준수사항
 - 남한관광객·수송수단은 관광지구관리기관 출입증명서로 사증없이 출입
 - 금강산관광지구내 단독 또는 단체로 자동차·도보 등의 자율통행 보장
 - 관광객 휴대금지 품목, 준수사항 규정(기존의 관광세칙과 유사)
- ☐ 투자자의 권리·기타
 -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허용 및 투자재산 보호
 - 관광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투자허용, 환경훼손 산업 투자금지 등
 -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 관광 가능
 - 전환성 외화 허용 및 외화의 반출입 보장
 - 분쟁발생시 협의해결 원칙,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 및 재판절차 해결

5.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및 임남댐 공동조사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유하천은 임진강과 북한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인 임진강 유역은 최근 수년간 홍수로 인해 남북 모두 많은 피해가 발생해 왔으나, 이에 대한 방지노력은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임진강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임진강 유역 남측 피해발생 현황>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재산피해(억원)	2,023	3,882	260	276
인명피해 (명)	139	13	1	3

* 출처 : 건설교통부(북한은 통계자료 미발표)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이 협력하여 수해방지를 추진해 나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1999년 8월 11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남북은 2000년 8월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처음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추진에 합의하였고, 김용순 특사 방문시(2000.9.11~14)에는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0년 12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하기로 함에 따라, 2001년 2월 평양에서 제1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공동조사단 구성 및 대상, 방법 등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이후 남북관계 전반의 소강상태에 따라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였으

나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북측의 임진강 상류 기상수문 등에 관한 자료 통보 및 우리측의 임진강 상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 제공, 11월 임진강 유역 현지조사 착수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평양에서 제2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임진강 유역과 한강하류에 대한 현지조사, 기상수문자료 통보, 홍수예보시설 설치 문제 등 대부분의 사항에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묘목제공과 관련하여 다소 이견이 있어 향후 개최될 제3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차기 실무협의회가 개최되는 대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남북 수자원 협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또 하나의 남북공유하천인 북한강 유역에 북한이 1986년부터 건설중인 임남댐(일명 금강산댐)에 대해 2002년 4월 이후 국내외로부터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북한은 2002년 5월 31일 임남댐 수위조절의사를 사전통보하고 6월 3일부터 6월26일간에 걸쳐 약 3억톤의 물을 방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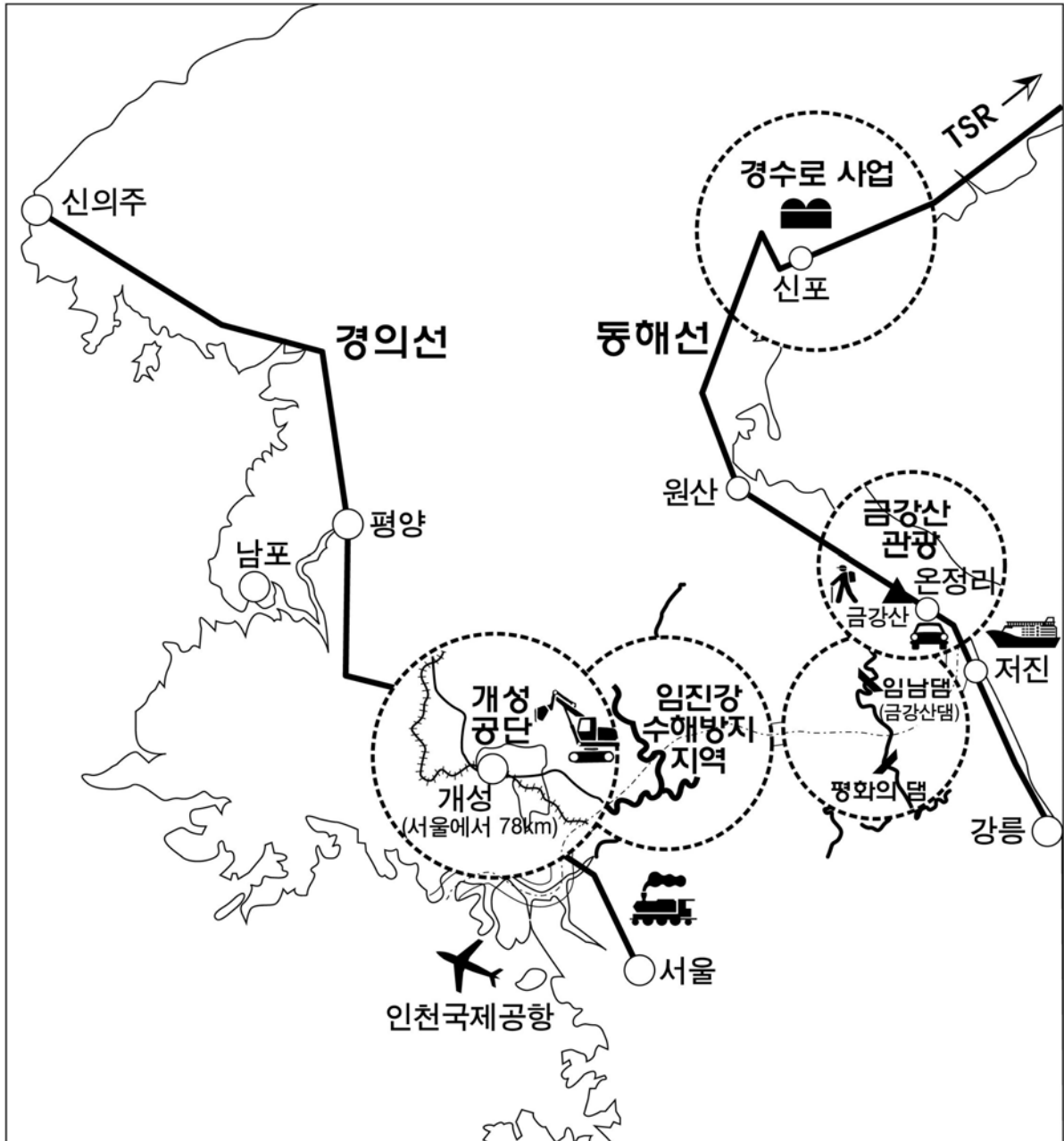
정부는 2002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임남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조사 등의 협의를 촉구하였고,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은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금강산에서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임남댐 공동조사의 필요성과 원칙에 공감하였으나 북측이 공동조사 실시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하여 추후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

정부는 북측 임남댐 안전과 관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002년 7월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2002년 9월부터 착수한 ‘평화의 댐’ 증축공사는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및 임남댐 공동조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남북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등 수자원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남북협력사업 지역



○ 부분은 바탕지도보다 150% 확대된 것입니다.

6.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8.30) 합의에 따라 북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시찰단 18명이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8박 9일 동안 전국 18개 지역 38개 산업시설, 관광지, 유통시설, 연구소 등을 돌아보았다.

시찰단은 내각 5명, 당 3명, 경제계 3명, 학계 2명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과 경제관련 고위간부들로 구성되어 시찰결과를 향후 경제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 경제시찰단 구성 >

성 명	직 책	성 명	직 책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장성택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철호	김일성대 컴퓨터과학대 부학장
김히택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고창립	수도건설위원회 기술국장
박봉주	화학공업상	림명옥	농업성 건설국장
송호경	조선 아태 부위원장	원동연	조선 아태 실장
박규홍	락원무역총회사 총사장	김세완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문경덕	조선대양회사 총사장	리 현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광린	국가계획위원회 책임참사	리성철	체신성 부원
박순철	조선보험그룹 부총사장	김일연	내나라 비디오 촬영가

방문기간중 북측 시찰단은 방문대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숙지해 온 듯 각 시찰지별로 필요로 하는 수집대상 자료를 사전 체크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시찰지마다 브리핑 내용을 상세히 메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우리 경제 실상과 발전 경험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시찰성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남북경협 확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경제시찰단의 방문은 지난 1992년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방문이후 2번째 방문으로 북한 최고위층의 특별한 관심 속에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시찰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책임있는 북한

고위 관료들이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우리 경제 각 분야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경제시찰단은 남한 방문에 이어 11월3일부터 11월14일까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산업시설 시찰 및 경제장관 면담 등을 통해 경험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11월17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남과 북은 2002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시찰단 교류확대를 위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방문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주요 시찰내용 >

구 분	지 역
산업시설(17)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남해화학, 고리원자력발전소, 삼성전자, LG전자, 이레전자, 소니전자, 엠코테크놀로지, 롯데제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태광실업, 범상공(섬유), 마니커(육계가공)
교통·유통 시설(7)	고속철도, 부산컨테이너항, 교통정보센터, 서울지하철, 코엑스, 현대백화점, 두산타워
연구시설(5)	대덕연구단지(생명공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SK텔레콤연구소, 포항공대
관광지(9)	창덕궁, 경복궁, 남산타워, 롯데월드, 에버랜드, 보문단지, 한림공원, 중문단지, 서귀포월드컵경기장

7. 대북 식량차관 제공

정부는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준다는 인도적 측면을 감안하여 2000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차관방식으로 식량을 제공하였다.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은 상거래적 의미를 띠고 있어, 남북간 경제적 거래관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서 남북간 상호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식량차관 제공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협력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000년 식량차관 제공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북측이 식량차관 제공을 요청해 온 이래,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차관제공합의서를 체결(2000.9.26)함으로써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을 제공하였다. 식량차관 제공이 비록 유상이지만 분배투명성 보장을 위해 식량포대에 「Republic of Korea」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제2차 경협실무접촉(2000.11, 평양)에서 우리측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제공식량 분배내역을 접수하고, 평양 인근 모란봉구역을 방문, 분배과정을 확인한 바 있다.

2002년 들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8.30)에서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쌀 40만톤을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대북 식량차관 제공이 재개되었다. 제공되는 식량은 2000년과는 달리 국내산 쌀로 구성되어 우리 농민들의 정성을 북한 동포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량차관으로 제공한 물량은 1999년산 25만톤과 2000년산 15만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질의 국내쌀을 북측에 제공함으로써 북측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식량차관은 우리의 식량수급상황, 북한의 식량사정과 요청, 차관이라는 제공 형식, 남북관계 개선에의 기여도,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관관리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 측면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도 충분히 논의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식량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부는 식량차관의 재원과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민

죽공동체 회복지원(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1억 1천만불 범위내에서 협력기금을 대출하도록 의결하였다. 식량차관금액은 2001년도 중국산 쌀의 국내 도입가인 톤당 미화 265불을 기준으로 북측과 합의한 1억 600만불과 하역비용 등 북측이 부담하는 400만불을 포함한 금액이다.

식량차관 제공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간 체결한 차관계약(2002.9.16)을 통해 확정하였다. 우리측은 식량인도회사로 농수산물유통공사,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로 수매양정성 산하 청길무역회사를 각각 선정하여 각각 인도·인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2년 차관의 경우에도 제공조건은 2000년과 동일하게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로 합의하였으며, 2002.9.19일 첫 항차가 출발한 이래, 2003년 1월 중순에 완료하였다.

한편, 정부는 제공되는 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북측은 쌀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하며, 분배문건 통보시점에 남측 인원들이 북측의 쌀 분배과정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아울러, 식량포장에는 '쌀', '40kg'과 함께 '대한민국'을 한글로 표기하여 2000년 차관제공시표기인 「Republic of Korea」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북한은 12개 시·도, 195개 시·군·구역에 대한 분배결과를 통보하여 왔으며, 우리측은 남포 인근지역을 방문하여 분배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남북간 식량차관제공합의서 요지(2002.8.30)>

남과 북은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미화 이백육십오달러(US\$265)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북측은 남측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남북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1993년 NPT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등에 힘입어 1995년부터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 증가 등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한 2억 2,194만달러에 그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및 경수로 건설사업 등 경협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달러를 넘어섰다.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섰고, 2001년에는 국내경기 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으로 2000년에 비해서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4억달러선을 계속 유지하였다.

2002년에는 거래성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비거래성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지원 등에 따라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6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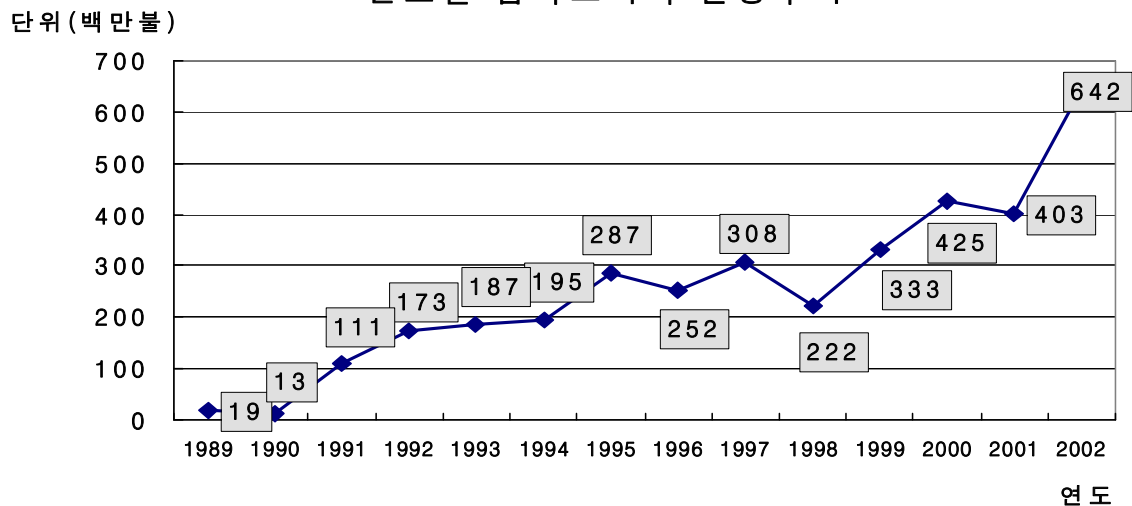
< 남북교역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323	57	111,266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572	92	173,426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698	103	186,592
1994	827	80	176,298	495	87	18,249	1,322	158	194,547
1995	1,124	109	222,855	2,720	166	64,436	3,844	243	287,291
1996	1,648	128	182,400	2,980	166	69,639	4,628	256	252,039
1997	1,806	142	193,069	2,185	281	115,270	3,991	362	308,339
1998	1,963	135	92,264	2,847	376	129,679	4,810	445	221,943
1999	3,089	171	121,604	3,421	404	211,832	6,510	487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6	272,775	7,394	576	425,148
20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7,754	545	402,957
2002	5,023	202	271,575	3,773	493	370,155	8,796	568	641,730
계	25,708		2,066,292	25,804		1,504,613	50,792		3,570,905

* 19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나. 남북간 교역수지

전체 교역 규모면에서 볼 때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북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98년부터는 남한의 반출우위의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1995년부터 KEDO중유 및 인도지원물자의 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경수로건설사업,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에는 비료지원, 2002년에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와 식량차관 등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교역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선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인도지원, 경수로, 금강산관광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면에서 연평균 1억 2,281만달러의 교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역수지 추이는 북한경제의 반입 여력이 확보되고, 청산결제 등을 통해 상호 균형적인 남북교역이 활성화 될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1989	18,655	69	18,724	-18,586	-
1990	12,278	1,188	13,466	-11,090	-
1991	105,719	5,547	111,266	-100,172 (-100,172)	1991~2002 연평균 -44,333 (-122,806)
1992	162,863	10,563	173,426	-152,300 (-152,300)	
1993	178,167	8,425	186,592	-169,742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158,049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158,419 (-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112,761 (-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77,799 (-133,049)	
1998	92,264	129,679	221,943	37,415 (-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53,929)	
20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61,315)	
2001	176,170	226,787	402,957	50,617 (-110,639)	
2002	271,575	370,155	641,730	98,580 (-197,419)	
합 계	2,066,292	1,504,613	3,570,905	-561,676 (-1,503,349)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다. 교역형태·품목

남북교역 초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역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이후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대남경협사업을 담당하고 베이징·단둥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직접교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4%의 반입 비중을 보이던 광산물은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초기부터 연평균 40%이상의 반입비중을 보이던 철강·금속제품은 1999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섬유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림수산품은 초기부터 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 47.2%, 2001년에는 51.0%로 각각의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품과 섬유류의 반입비중이 1999년 76.8%, 2000년 82.4%, 2001년에는 82.2%로써 높은 편중도를 보이고 있다. 2002년의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36.8%, 섬유류 31.6%, 철강금속제품 6.9% 등이다.

< 연도별 반입품목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 도	농 립 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제 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 제 품	기계류	전자전기 제 품	잡제품	합 계
1989	2,334 (12.5)	1,094 (5.9)	104 (0.6)	4 (0.0)	5 (0.0)	0 (0.0)	15,072 (80.8)	24 (0.1)	0 (0.0)	19 (0.1)	18,655 (100.0)
1990	5,572 (45.4)	58 (0.5)	1,730 (14.1)	0 (0.0)	0 (0.0)	87 (0.7)	4,529 (36.9)	14 (0.1)	0 (0.0)	289 (2.4)	12,278 (100.0)
1991	9,910 (9.4)	21,966 (20.8)	5,732 (5.4)	0 (0.0)	0 (0.0)	171 (0.2)	67,303 (63.7)	17 (0.0)	0 (0.0)	620 (0.6)	105,719 (100.0)
1992	16,880 (10.4)	44,007 (27.0)	12,865 (7.9)	0 (0.0)	3,385 (2.1)	657 (0.4)	83,514 (51.3)	539 (0.3)	4 (0.0)	1,012 (0.6)	162,863 (100.0)
1993	11,787 (6.6)	87,145 (48.9)	1,182 (0.7)	0 (0.0)	8,329 (4.7)	754 (0.4)	63,147 (35.4)	0 (0.0)	80 (0.0)	5,744 (3.2)	178,167 (100.0)
1994	15,189 (8.6)	75,531 (42.8)	1,246 (0.7)	0 (0.0)	17,923 (10.2)	2,162 (1.2)	63,069 (35.8)	0 (0.0)	0 (0.0)	1,178 (0.7)	176,298 (100.0)
1995	21,270 (9.5)	86,412 (38.8)	343 (0.2)	3 (0.0)	28,639 (12.9)	2,633 (1.2)	81,467 (36.6)	9 (0.0)	6 (0.0)	2,074 (0.9)	222,855 (100.0)
1996	23,177 (12.7)	64,714 (35.5)	394 (0.2)	58 (0.0)	44,459 (24.4)	3,169 (1.7)	44,260 (24.3)	91 (0.0)	1,697 (0.9)	382 (0.2)	182,400 (100.0)
1997	27,458 (14.2)	62,682 (32.5)	130 (0.1)	665 (0.3)	47,091 (24.4)	2,614 (1.4)	47,946 (24.8)	1,002 (0.5)	3,140 (1.6)	342 (0.2)	193,069 (100.0)
1998	21,843 (23.7)	2,368 (2.6)	172 (0.2)	45 (0.0)	38,802 (42.1)	3,852 (4.2)	20,254 (22)	698 (0.8)	3,518 (3.8)	711 (0.8)	92,264 (100.0)
1999	48,066 (39.5)	2,230 (1.8)	480 (0.4)	1 (0.0)	45,741 (37.6)	3,933 (3.2)	16,120 (13.3)	1,557 (1.3)	2,850 (2.3)	626 (0.5)	121,604 (100.0)
2000	71,834 (47.1)	262 (0.2)	620 (0.4)	180 (0.1)	53,693 (35.2)	3,339 (2.2)	11,747 (7.7)	1,754 (1.2)	8,251 (5.4)	693 (0.5)	152,373 (100.0)
2001	90,028 (51.1)	3,641 (2.1)	51 (0.0)	573 (0.3)	54,937 (31.2)	5,413 (3.1)	9,887 (5.6)	2,285 (1.3)	8,752 (5.0)	604 (0.3)	176,170 (100.0)
2002	99,901 (36.8)	8,600 (3.2)	603 (0.2)	548 (0.2)	85,849 (31.6)	3,463 (1.3)	18,821 (6.9)	1,806 (0.7)	9,534 (3.5)	42,450 (15.6)	271,575 (100.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1993년부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로 섬유류가 늘어나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식량지원 등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증가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가 1997년부터 10%이상, 화학공업제품도 1999년 20.2%, 2000년 35.0%, 2001년 28.2%로 반출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의 반출과 비료지원으로 인한 것이다. 2002년의 주요 반출품목은 농림수산물 29.8%, 화학

공업제품 24.2%, 섬유류 18.2%, 기계류 10.2%, 철강금속제품 7.1%, 전기전자제품 6.0% 등이다.

< 연도별 반출품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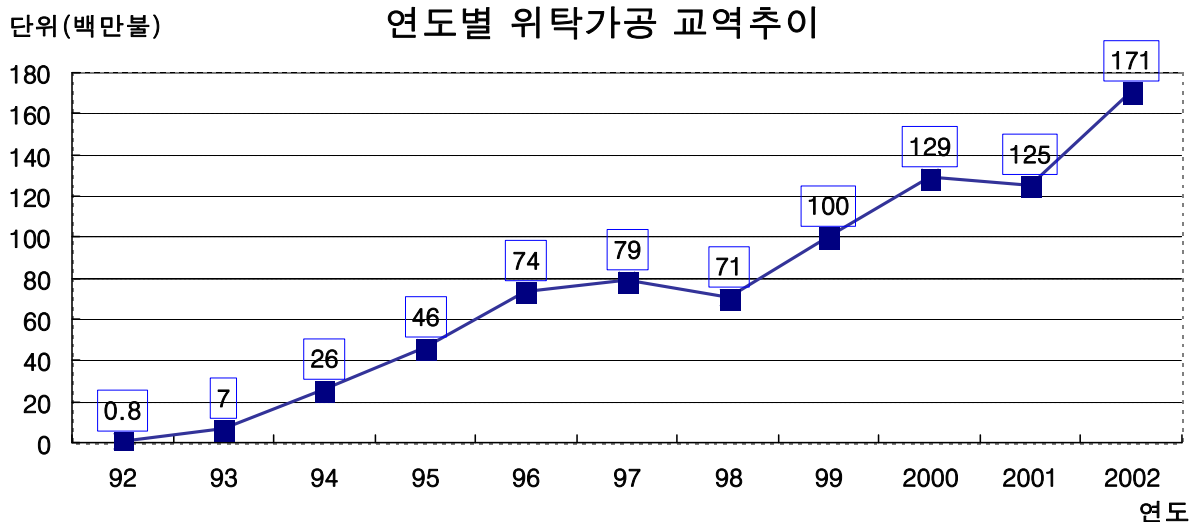
(단위:천달러)

연 도	농 림 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 제 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 제 품	기계류	전자전기 제 품	잡제품	합 계
1989	0 (0.0)	0 (0.0)	0 (0.0)	0 (0.0)	6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69 (100.0)
1990	10 (0.8)	0 (0.0)	0 (0.0)	0 (0.0)	83 (7.0)	0 (0.0)	0 (0.0)	1,095 (92.2)	0 (0.0)	0 (0.0)	1,188 (100.0)
1991	1,607 (29.0)	1,392 (25.1)	1,819 (32.8)	216 (3.9)	66 (1.2)	0 (0.0)	0 (0.0)	0 (0.0)	447 (8.1)	0 (0.0)	5,547 (100.0)
1992	64 (0.6)	0 (0.0)	5,348 (50.6)	2,348 (22.2)	738 (7.0)	85 (0.8)	1,957 (18.5)	22 (0.2)	0 (0.0)	0 (0.0)	10,563 (100.0)
1993	69 (0.8)	0 (0.0)	920 (10.9)	313 (3.7)	5,886 (69.9)	64 (0.8)	260 (3.1)	0 (0.0)	584 (6.9)	330 (3.9)	8,425 (100.0)
1994	3,302 (18.1)	0 (0.0)	1,584 (8.7)	71 (0.4)	11,835 (64.9)	353 (1.9)	274 (1.5)	67 (0.4)	149 (0.8)	613 (3.4)	18,249 (100.0)
1995	9,294 (14.4)	12,264 (19.0)	1,465 (2.3)	1,594 (2.5)	35,012 (54.3)	2,289 (3.6)	185 (0.3)	1,548 (2.4)	262 (0.4)	521 (0.8)	64,436 (100.0)
1996	6,713 (9.6)	12,783 (18.4)	3,394 (4.9)	1,757 (2.5)	37,648 (54.1)	3,089 (4.4)	290 (0.4)	932 (1.3)	2,200 (3.2)	833 (1.2)	69,639 (100.0)
1997	16,988 (14.7)	29,322 (25.4)	3,977 (3.5)	4,774 (4.1)	35,055 (30.4)	4,074 (3.5)	3,951 (3.4)	12,986 (11.3)	3,559 (3.1)	585 (0.5)	115,270 (100.0)
1998	19,634 (15.1)	20,551 (15.8)	6,330 (4.9)	3,540 (2.7)	29,675 (22.9)	4,319 (3.3)	9,475 (7.3)	28,903 (22.3)	5,708 (4.4)	1,544 (1.2)	129,679 (100.0)
1999	17,037 (8.0)	42,629 (20.1)	51,409 (24.3)	3,204 (1.5)	38,005 (17.9)	6,363 (3.0)	17,017 (8.0)	26,749 (12.6)	7,480 (3.5)	1,939 (0.9)	211,832 (100.0)
2000	26,067 (9.6)	16,204 (5.9)	100,363 (36.8)	4,221 (1.5)	43,259 (15.9)	6,389 (2.3)	14,002 (5.1)	32,242 (11.8)	27,951 (10.2)	2,079 (0.8)	272,775 (100.0)
2001	32,520 (14.3)	5,760 (2.5)	69,932 (30.8)	3,399 (1.5)	52,615 (23.2)	2,751 (1.2)	16,697 (7.4)	26,466 (11.7)	15,272 (6.7)	1,375 (0.6)	226,787 (100.0)
2002	110,197 (29.8)	5,103 (1.4)	89,617 (24.2)	4,115 (1.1)	67,257 (18.2)	5,507 (1.5)	26,365 (7.1)	37,867 (10.2)	22,116 (6.0)	2,011 (0.5)	370,155 (100.0)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후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다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위탁가공교역으

로 생산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년보다 40.3%, 2000년에는 29.7%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3.3%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34.8% 증가하였다. 2002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7,118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26.7%, 거래성 교역액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96년부터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모니터 부품,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이, 2000년에는 라디오 카세트, 유선전화기, 컴퓨터모니터, 당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들어갔다. 2001년에는 조제과실, 잎담배, 유아복, 방송통신기기, 전산기록매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방북은 1995년에 대동화학의 기술진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그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주)엘칸토 등 7개 기업 50명, 1999년에 성남전자공업(주) 등 6개 기업 57명, 2000년에는 (주)IMRI 등 10개 기업 81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다. 또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기관인 기술표준원 관계자 2명이 최초로 현지공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1년에는 성남전자공업(주) 등 29개 기업 203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대한광업진흥공사 관계자 2명이 최초로 북한 광물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2년에는 32개 기업 241명이 방북하였으며, (주)엘칸토, 성남전자공업(주), (주)IMRI, 서전어패럴(주) 등 이미 진출한 위탁가공업체들은 정기적으로 방북, 기술지도를 하는 등 점차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172건 3,204만달러로 2002년도에는 48건 623만달러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2002년의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수는 108개에 이르고 있다. 설비 반출이 계속되고 참여업체수가 최근 4년 연속 100개 이상에 유지한다는 사실은 위탁가공교역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에도 의류, 전자·전기제품 등 가공설비의 유지·향상을 위한 설비가 꾸준히 반출되었으며, 제분용 기계, 산채류가공설비, 모래준설을 위한 선박 등도 반출되었다.

< 위탁가공교역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24,924
2002	271,575	102,789	370,155	68,388	641,730	171,177
합계	2,066,292	460,690	1,504,613	368,081	3,570,905	828,771

< 연도별 위탁가공설비 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업체수(건수)	2(2)	3(6)	4(4)	6(6)	13(16)	20(35)	30(52)	18(48)	96(169)
금 액	532	670	490	1,380	5,234	7,653	8,993	6,232	31,184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

(단위 : 개)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제3절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1. 개 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대북포용정책 기조아래 사회문화교류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크게 진전되었다.

1990년대 초반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왕래행사가 재개되어 대규모 방북·방남 행사가 성사되었으며, 1998년이전 3건에 불과하던 협력사업은 1998년이후 28건으로 증가하였다. 내용면에서도 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방남행사가 성사되면서 방북행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쌍방향 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2000년에 평양교예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조선국립교향악단 방남공연이 개최되었으며, 2002년에는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 태권도시범단 교환공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행사와 민간급 8.15남북공동행사에 북한이 참여하였다.

또한, 금강산가극단 한국공연,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 3D애니메이션 공동제작, 6.15, 8.15 남북공동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성사되면서 교류행사가 일회성·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화·정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1년 8.15공동행사시 일부인사의 돌출행동 및 이로 인한 내부 갈등 표출 등의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문화교류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건전하게 추진되고, 내용면에서도 더욱 내실화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2002.12.31현재)

사업자	북측상대방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 (사업승인)
※대한탁구협회	북한탁구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1991.4.24~5.6)남 북단일팀 구성 참가(일본)	1억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3.21 (1991.3.21)
※대한올림픽위원회	북한올림픽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1991.5.2 7~6.4)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포르투갈)	7억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5.1 (1991.5.1)
※중앙일보 통일문 화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조 선중앙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달러	1997.12.10 (1997.12.10)
※연변과기대후원회 →동북아교육문화 협력재단(1999.6.29)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 선봉내 과기대 설립 운영 (나진·선봉)	500만달러	1998.1.9 (1998.6.5)
문화방송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 램 촬영(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60만달러	1998.3.13
※한민족복지재단 (합영)	라선경제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240만달러	1998.4.8 (1998.6.5)
※스포츠아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 영 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달러	1998.4.29 (1998.4.29)
※한국사진학회	조선사진가동맹중 앙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 평양) 및 사진집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1998.4.29 (1998.4.29)
※경향신문 한민족 문화네트워크연 구소(합영)	금강산국제그룹 (회장:박경윤)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1998.5.11 (1998.6.20)
우인방커뮤니케이션	조선해외동포원호 위원회	북한 명산 역사적 명승지 탐방관련 다큐 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1998.8.6
※우인방커뮤니케 이션/한국자동 차경주협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래리	100만달러	1999.2.9 (1999.11.11)
※(주)CNA코리아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19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 서울 공연	100만달러	1999.3.25 (1999.4.16)
MBC프로덕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CD 남북공동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	68만달러	1999.5.12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과학원(국토환 경보호성 산하)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진사업	미 정	1999.7.21
※SN21엔터프라이즈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75만달러	1999.8.5 (1999.8.5)
※현대아산·현대 건설('00.3.8) o현대자동차등 13 개사 참여('00.7.4)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3,420만달러 (남북한총투자액 : 5,750만달러)	1999.9.2 (99.9.20)→ 변경승인: '00.3.8, '00.7.4

사업자	북측상대방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 (사업승인)
※(주)계명프로덕션	조선예술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달러	1999.9.22 (1999.9.22)
※(주)네오비전	조선백호7무역회사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50만달러	2000.2.3 (2000.2.3)
평화의 숲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종자·묘목· 장비 지원	4억원	2000.4.12
※기독교대한감리 회서부연회	조선기독교도연맹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60만달러	2000.5.20 (2001.1.12)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550만달러	2000.5.23 (2000.5.23)
※경향신문 한민족 문화네트워크연 구소(단독)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50만달러	(2000.7.14)
※(주)시스젠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업 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사이트 개설운영	60만달러	2000.9.1 (2000.9.1)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100만달러	2000.10.14
(주)야미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미정	2000.11.29
※한국문화재단	금강산가극단	금강산 가극단 한국 방문 공연	1천만엔	2000.11.29 (2000.11.29)
※(사)춘양문화선 양회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100만달러(40 만달러 현물)	2001.1.12 (2001.1.12)
※(주)하나로통신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19만달러→ 107,666달러	2001.3.23 (2001.3.23 →2001.12.26)
※(사)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교육성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400억원	2001.6.5 (2001.6.5)
※남북교육문화 교류연구소 (동해대학교)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9만달러	2001.6.7 (2001.6.7)
※우인방커뮤니 케이션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통일염원 6.15금강산 랠리	100만달러	(2001.7.25)
※(주)지스코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한국공연	3천만엔 →2천만엔	2002.6.25 (2002.6.25 →02.11.29변경)
※(사)민족화해협 력범국민협의회	재일본조선역사 고고학협회	고구려문화전 개최	160만달러	2002.7.8 (2002.7.8)
※(주)하나로통신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22만달러	(2002.7.26)
※한국청소년사 랑회	재일본조선인 총 연합회 교육국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초청공연	무상	2002.8.20 (2002.8.27)
※MBC	민화협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장면 등 취재 방송, 아시아경기대회 축하를 위한 남북합동공연	120만달러 (60만달러현물)	2002.9.7 (2002.9.7)
※KBS	민화협	방송물 공동제작 및 생방송	53만달러	2002.9.13 (2002.9.13)
※KBS	민화협	남북교향악단 연주회	45만달러	(2002.9.13)

2.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가. 교육학술 분야

교육학술 분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남북간 교류가 시작된 이래 북한 왕래행사가 5차례 실시되는 한편, 제3국 행사가 꾸준히 전개되었다. 남북간 학술교류는 역사, 한국학, 경제, 통일안보, 과학기술, 언어, 대학간 학술교류,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개되었으며, 특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에 따라 1998년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2년 중에 성사된 남북학술행사를 살펴보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선양에서 「한민족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10.17-18)를 남·북·중 공동개최하였고, 한국아동학회는 엔지에서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 학술회의(5.30-6.1)를 열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아태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TSR의 역할회의(7.24-25)에 후원 참가하였으며, 남북언어정보표준위원회는 베이징에서 남북언어정보 표준화 회의(8.4-6)를 개최하였다.

또한, 선문대학교는 선양에서 21C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조건과 구상 학술회의(10.16-18)를 개최하였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 워크숍(12.13)에 후원 참가하였으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엔지에서 남·북·중 여성학 학술회의(12.23-24)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성사되었다.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전람회도 개최된 바 있었다. 독일 뮌헨 국제전람사는 평양에서 평양 국제기술·기간산업 전람회(9.17-20)를 열었으며 행사기간 중 유럽회사들의 한국지사 임원 17명이 방북하였다.

이외에도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은 7월중 방북하여 제1회 세계한국학대회(8월, 서울)에 북한 사회과학원장 등의 초청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의 사정상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은 6.12 착공식(2001.6.5 협

력사업 승인)을 실시한 뒤 부지정리 공사를 해왔다. 2004년 가을까지 박사원(석사과정) 개교에 필요한 건물 7개동이 먼저 건축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도 북한 김책공대와 2001년 5월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백남공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대학의 부지 위치와 건축규모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아직 구체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2년도의 교육학술분야의 성과 중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대북 IT 교육 실시이다. 한양대는 8주간(7.1~8.23) 김책공대·김일성대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IT교육을 성공리에 실시하고 한양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이외에 Global Knowledge Korea, 통일미래연구원, 재외동포연구원 등도 대북 IT교육 사업에 대해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교류협력이 증가할 전망이다.

나. 체육 분야

체육분야의 교류는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99년에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통일농구경기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상호개최함으로써 다시 활성화 되었다. 2000년과 2001년에 연이어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지역에서 자동차질주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0년 개최된 시드니 올림픽개막식에는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입장한 바 있으며, 2001년 8월에는 금강산지역에서 국제모터사이클투어링이 개최되었다.

2002년에는 남북한을 오가며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류가 이루어졌다. 유럽-코리아재단 박근혜 이사 방북시(5.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데 따라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개최(9.5~8)되었다. 대회에는 북한 이광근 무역상(축구협회장)을 단장으로 49명의 북측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8.12~14)에서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됨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구천서 회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태권도시범단 50명이 평양공연(9.14~17) 참가차 방북하였고, 이어서 조선타권도위원회 황봉영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태권도시범단 41명이 서울공연(10.23~26)에

참가하였다. 한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에 북측이 대규모로 선수단 및 응원단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남북체육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다. 문화·예술분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8년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 평양의 윤이상음악회 참가, 1999년의 평화친선음악회 방북공연,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에 이어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등 대규모 남한공연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민족옷전시회, 남북공동사진전,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화예술교류의 양적 질적 증대를 가져왔다.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예술단의 공연(8.16)이 남한지역에 생중계되고, 9월 평양에서 개최된 KBS 주관의 남북교향악단합동공연(9.16-22)과 MBC 주관의 이미자·윤도현 평양 특별공연(9.25-30)이 남북전역에 방영되면서 민족동질성을 확인하고, 상호 이질화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남한 대중가수 공연이 처음으로 북한지역에 생중계되고,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응이 높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진일보된 문화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에 이어 금강산가극단의 한국공연(11.30-12.10) 및 KBS 교향악단의 평양답례공연(9.16-22)이 이루어지고, 2001년에 이어 3D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향후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 정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강산가극단(11.30-12.10)은 부산·전주에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9.2-8)은 서울·전주에서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그동안 서울에 국한되었던 남북교류행사가 지역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만든 고구려 고분의 모사벽화와 진품유물들로 이루어진 고구려유물전시회('02.12.6-'03.3.5)는 공통된 역사와 민족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남북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라. 언론·출판분야

언론교류는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조사 사업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1998년 「남북통합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사업」과 2000년 「북한문화예술자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상황을 바탕으로 각종 방북 행사에 취재단이 포함되고, 개별 방송사 차원의 북한현지촬영 및 방송물 제작·방송도 이루어졌다.

2002년 KBS는 백두산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고인돌 관련 방송물을 제작하였으며, 9월에는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남북 동시에 생중계하였다. 아울러 KBS와 MBC는 2002년 9월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준비현장, 경제·생활상 등을 취재하여 서울-평양 이원생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2002년말 북한 조총련계 통신사를 통해 조선중앙통신사 기사자료를 제공받아 국내 언론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관영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출판분야에서는 2001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던 북한 기사자료의 국내잡지 등에 대한 게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월간지 「민족 21」은 통일신보사와 조선신보사의 기사를 반입하여 게재하고, 기타 중국 중개인을 통한 북한의 아동문학, 순수문학, 역사관련 저작물 등이 국내에서 출판되어 소개되고 있다.

마. 종교분야

종교분야 교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교차원의 관심과 대북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관심을 바탕으로 기독교, 불교, 민족종교 등 각 종단·교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더욱 활기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 성사된 주요 교류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계는 각 교단대표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 재일 대한기독교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동경회의(7.22-7.25)를 개최하고, 각 교단별 남북교회 교류 협력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2001년 평양신학원 관련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97년이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을 매년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선교회·아세아선교회·광성교회·한국기독교공보사 등 교회관계자들은 북한방문 계기시마다 평양 봉수교회·칠골교회·가정교회에서 남북공동예배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조국통일기독교지협의회는 2002년 5월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조국평화통일기원금강산 남북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 주관하에 2000년부터 조선카톨릭교협의회와 중국 따론펜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기념 남북공동학술세미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조선불교도연맹측과 함께 1997년이래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채택하여 남북공동법회를 개최해 왔다. 2002년 4월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와 남북불교도 공동법회를 개최하였으며, 불교계는 북한사찰 59개소의 단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도교 등 민족 종교는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개천절 공동행사 및 단군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정부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2002.9.29-10.14)에 북한의 참가가 남북간 체육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민족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회조직위원회 명의의 공식 초청서한을 발송(2001.10)하고 대통령 특사 방북(2002.4)시 대회참가를 제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2002.8.2-4)에서 북한의 대회 참가가 합의되었고,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대회참가를 공식통보하는 한편, 실무접촉을 제의(8.9)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간 실무접촉이 2차례(8.17-19, 8.26-28)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북한 선수단·응원단 규모, 개·폐회식때 남북 동시입장 등 실무절차 문제에 대한 최종합의(8.28)가 이루어졌다. 특히 실무접촉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를 금강산에서 대회조직위원회측에 인계(9.6)하여, 한라산에서 채화된 성화와 임진각 망배단에서 합화(9.7)함으로써 남과 북의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 선수단은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평양-부산 직항로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남한을 방문(9.23, 9.27)하였고, 응원단은 ‘만경봉-92호’ 편으로 원산에서 부산으로 방문(9.28)하는 등 총 705명의 인원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취주악대 150명, 예술단 35명 등 총 275명의 북한 응원단은 거리공연, 환송식장 공연 등 총 5회의 공연과 경기장내 응원 등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이들이 대회기간 중 생활한 ‘만경봉-92호’ 또한 집중적인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여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대회 말미에 개최된 마라톤에서 북한의 함봉실과 남한의 이봉주가 각각 여자와 남자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하였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올 때와 같은 항공·해운 편으로 귀환(10.11, 10.15)하였다

남한에서 개최된 국제체육행사에 북한이 참가한 것은 분단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특히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 및 응원단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4. 다양한 남북공동행사 개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부문의 다양한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어 남북간 상호 이해 및 통일의지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1999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01년 5월에는 금강산에서 노동절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되었고, 2001년 6월에는 금강산 통일대토론회, 7월에는 남북농민 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8월에는 8.15 남북공동행사가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02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돌을 기념하는 6.15 남북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다. 한편 8.15 남북공동행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북측 민간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하여 합동문화공연, 미술·사진 전시회, 부문별 상봉모임,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10월에는 남북청년학생공동행사 및 남북여성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남북공동행사는 노동·농민·청년·여성 등 다양한 민간부문 단체들이 질서있게 대규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정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및 통일의지 함양에 기여하였다.

제4절 남북한 인적 교류

1. 남북한 왕래

가. 개 황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남북한 왕래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4,066건(43,751명), 승인 3,885건(41,880명), 성사 3,660건(39,977명)이며, 1998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총 37,572명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 방북인원 2,405명의 15배를 넘어서고 있어 남북간 인적교류 활성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2002년 북한 방문은 신청 802건(13,502명), 승인 774건(12,979명), 성사 753건(12,825명)으로 1989년 방북이 허용된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이는 2001년도의 8,551명에 비교해서도 약 50%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이산가족·관광·대북지원 등 방북목적도 다양화되었다.

< 2002년도 분야별 방북 현황 >

(단위:명)

구 분	이산가족	경 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경수로	대북지원	기타 (남북회담등)	계
인원(명)	1,479	1,754	1,193	1,008	4,108	1,975	1,308	12,825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현황을 보면, 2002년 한해 동안 1,052명이 남한을 방문함으로써 2001년의 191명과 비교하여 5배이상 증가되었다. 분야별로도 남북회담, 경제, 체육, 종교, 8.15남북공동행사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성사되었다.

< 2002년도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 >

(단위:명)

구 분	경 제	체 육	종교	남북 회담	기타	계
인 원	67	765	15	89	116	1,052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2002년에도 금강산관광 활성화 조치 등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외국인 1,168명, 영주권자 634명을 포함하여 총 514,243명 금강산을 관광했다. 2002년 한해에만 84,727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 분야별 방북 현황(누계)>

(1989.6.12-2002.12.31, 단위:명)

구 분	이산 가족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사업	경수로	대북 지원	기 타 (남북회담등)	계
인원(명)	1,990	3,798	3,390	9,465	12,311	4,576	4,447	39,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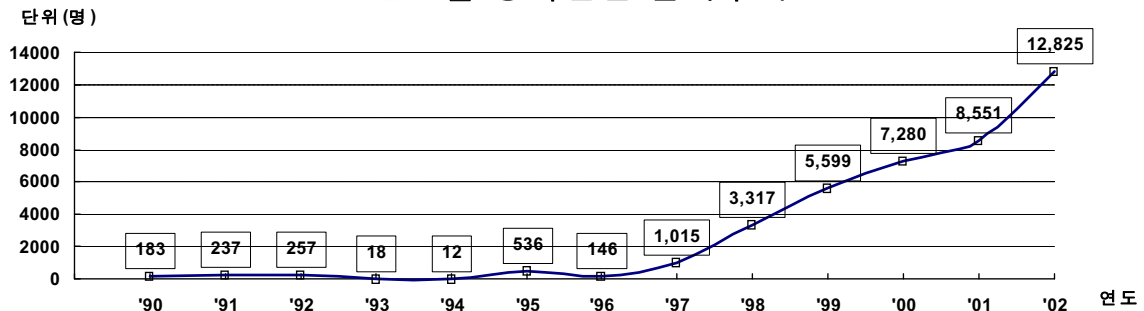
<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

(1989.6.12-2002.12.31, 단위:건(명))

연도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북한방문 남한방문	1(1) -	1(1) -	1(1) -
1990	북한방문 남한방문	7(199) 5(306)	6(187) 5(306)	3(183) 4(291)
1991	북한방문 남한방문	12(244) 3(175)	11(243) 3(175)	10(237) 3(175)
1992	북한방문 남한방문	17(303) 4(113)	8(257) 3(103)	8(257) 3(103)
1993	북한방문 남한방문	6(21) 2(6)	5(19) 2(6)	4(18) 2(6)
1994	북한방문 남한방문	12(78) -	7(54) -	1(12) -
1995	북한방문 남한방문	64(563) 1(7)	58(543) 1(7)	52(536) -
1996	북한방문 남한방문	50(249) -	35(170) -	28(146) -
1997	북한방문 남한방문	156(1,194) -	149(1,172) -	136(1,015) -
1998	북한방문 남한방문	402(3,980) -	387(3,716) -	340(3,317) -
1999	북한방문 남한방문	886(6,199) 1(62)	862(5,997) 1(62)	822(5,599) 1(62)
2000	북한방문 남한방문	865(8,070) 10(706)	845(7,737) 10(706)	804(7,280) 10(706)
2001	북한방문 남한방문	786(9,148) 5(191)	737(8,805) 5(191)	698(8,551) 5(191)
2002	북한방문 남한방문	802(13,502) 13(1,120)	774(12,979) 13(1,120)	753(12,825) 13(1,052)
계	북한방문 남한방문	4,066(43,751) 44(2,686)	3,885(41,880) 43(2,676)	3,660(39,977) 41(2,586)

※ 금강산 관광객은 제외된 숫자임.

연도별 방북인원 변화추이



한편,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은 총 2,58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에는 291명이 방문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남한방문이 없었다. 1999년에는 62명이 방문하였고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706명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부진 등으로 인해 191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남북 당국간회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1,052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누계)>

(1989.6.12-2002.12.31, 단위:명)

구 분	이산가족	경제	체육	문화예술	학술	남북회담	기타	계
인원(명)	427	105	976	369	15	559	135	2,586

나. 남한주민 방북

(1) 경제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901건(4,560명), 승인 823건(4,207명), 성사 747건(3,798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255건(1,885명), 승인 247건(1,820명), 성사 235건(1,754명)으로 이는 2001년 방북인원 668명에 비하여 162.6%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추진과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되면서 같은 해 10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1999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해 북한의 고위층과 직접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 3회, 남북경협 실무접촉 2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2회,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3회,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2회,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1회 등 경제협력에 관한 각종 회담이 이어져 상호방문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위한 우리 경제인들의 북한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도에도 경제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임가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협의, 하나비즈닷컴·엔트랙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협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임가공사업 추진, 국제옥수수재단의 농업기술협력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장 건설사업, 로템의 철도화차 제작기술지원, 제일모직, LG 등 의류임가공사업 및 물자교역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방북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2) 사회문화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470건(4,175명), 승인 428건(3,894명), 성사 364건(3,390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110건(1,287명), 승인 101건(1,201명), 성사 100건(1,193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1년 방북인원 701명에 비하여 70.2%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 교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이 증가하였다. 특히, 제3국에서 주로 접촉해 오던 사회문화교류가 평양,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학술·체육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신청 219건(1,979명), 승인 210건(1,916명), 성사 183건(1,620명)이며, 2002년에는 신청 55건(422명), 승인 52건(394명), 성사 52건(394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도 주요 방북사례를 보면 김충환 강동구청장 등 8명이 선사문화학술회의 협의를 위해, 고려대 김정배 총장 등 2명이 개천절 남북공동 단군학술회의 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 한양대학교 이승철 국제대학원장 등 5명은 IT강좌 개설협의를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측은 북한의 대회참가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유럽-코리아재단측은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 개최 협의를 위해 방북하였다. 구천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등 50명은 남북태권도시범단 교환공연을 위해 방북하는 한편, 현대는 평양실내체육관 건설사업을 위해 관련인사와 건설근로자들이 방북하는 등 학술·체육분야에서 북한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 방북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61건(433명), 승인 53건(400명), 성사 47건(372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10건(90명), 승인 9건(85명), 성사 9건(84명)이 이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 8월에는 언론사 사장단 방북이 성사되어 「남북언론기관간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북한 언론기관대표의 서울 방문 추진에도 합의한 바 있다.

2002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KBS가 1월에 방북하여 드라마 일부를 촬영하였다. 월간지 「민족21」 관계자는 1월과 5월에 각각 방문하여 주요인물 인터뷰 및 주민생활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으며, 방송위원회는 8월 방북하여 남북방송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종교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93건(590명), 승인 78건(469명), 성사 62건(397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18건(202명), 승인 15건(165명), 성사 15건(165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1년 방북인원 86명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개신교, 불교, 천도교 등 각 교단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63건(1,008명), 승인 56건(965명), 성사 46건(882명)이었다. 2002년에는 신청 21건(524명), 승인 20건(517명), 성사 19건(513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3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2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KBS 남북교향악단 평양공연, MBC 대중가수 평양특별공연, 영화 “아리랑” 평양시사회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3)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방북

1995년에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부지조사단과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997년 8월에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1998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700여명의 공사관계자들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2002년도 대북경수로건설사업 관련 방북은 신청 148건(4,108명), 승

인 148건(4,108명), 성사 148건(4,108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7%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9년 12월 15일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44건(2,686명), 승인 43건(2,676명), 성사 41건(2,586명)이며 2002년에는 13건(1,120명)이 신청·승인되어 13건(1,052명)이 성사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999년에 들어와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북측농구단 및 관계자 62명이 서울을 방문(12.22~25)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재개되었다.

2002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9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남한방문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8.15 남북공동행사 등 대규모 사회문화교류행사의 개최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에 따른 것이다.

< 주요 남한방문 현황 >

연도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기간
2000년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최휘 김일성사회주의청년 동맹중앙위 비서 등 공연단 102명	2000.5.24-5.30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김유식 평양교예단 예술 부단장 등 공연단 102명	2000.5.29-6.1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참가	전금진 등 대표 4명 수행원·기자 25명	2000.7.29-7.31
	제1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유미영 대표 등 15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 력 31명, 기자 20명)	2000.8.15-8.18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참가	허이복(조선국립교향악 단 단장) 등 132명	2000.8.18-8.24
	북한 특사 방문	김용순 등 8명	2000.9.11-9.14
	제1차경제협력실무접촉	정운업 등 15명	2000.9.24-9.26
	제1차남북국방장관회담	김일철 등 13명	2000.9.24-9.26

연 도	방문목적	방문자	방문기간
	제3차남북장관급회담	전금진 등 22명	2000.9.27-9.30
	제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장재언 등 136명	2000.10.31-11.2
200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김경락 등 140명	2001.2.26-2.28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조문단	송호경 등 4명	2001.3.23
	조총련계 북한국적 축구 선수 현대축구단 입단	양규사	2001.3.28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 참석	김령성 등 27명	2001.9.15~9.18
	KEDO원전 고위정책자 과정 참여	김희문 등 19명	2001.12.17~12.29
2002년	경수로사업 항공관계자 국내시찰	안영환 등 10명	2002.5.19-5.24
	경수로사업관련 핵 안전 규제요원 훈련	김영일 등 25명	2002.7.2-7.27
	KEDO 원전건설 인력수 송 항공기 운항 승무원	길종기 등 14명	2002.7.20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김령성 등 41명	2002.8.12-8.14
	8.15남북공동행사	김영대 단장 등 116명	2002.8.14-8.17
	제2차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박창련 등 30명	2002.8.27-8.30
	남북통일축구경기	리광근 등 49명	2002.9.5-9.8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박명철 등 668명	2002.9.22-10.15
	개천절남북공동행사참가 단 수송	김수겸 등 15명	2002.10.1-10.5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장 웅 등 7명	2002.10.8-10.15
	북한 태권도시범단 서울 공연	황봉영 등 41명	2002.10.23-10.26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박남기 등 18명	2002.10.26-11.3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김춘근 등 18명	2002.12.11-12.13

2. 북한주민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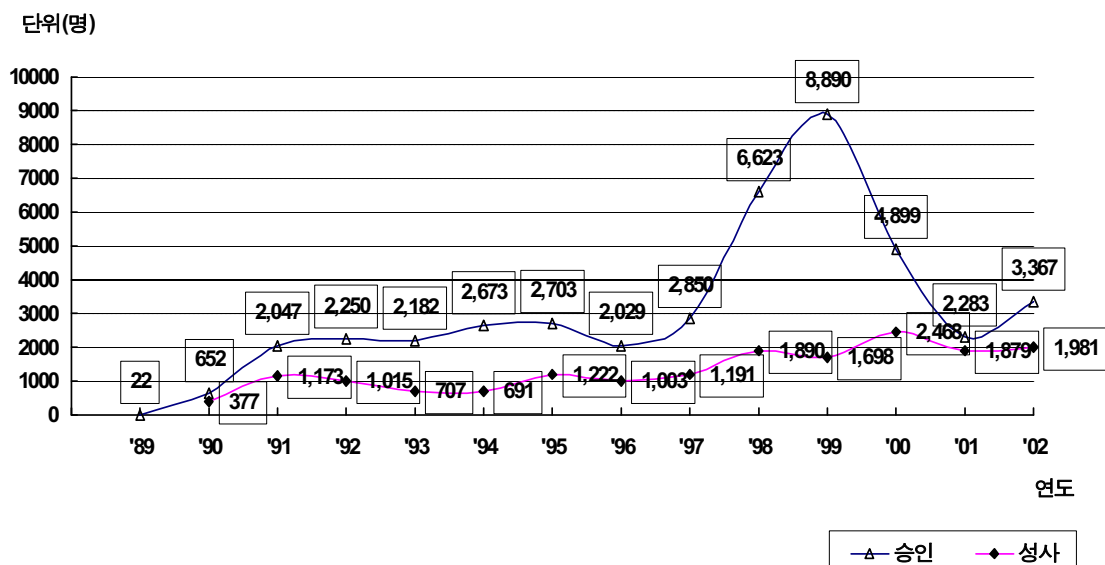
가. 개 황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핵문제 발생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1994년에는 237건(691명)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산가족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2002년도 북한주민접촉 실적이 2001년도와 비교해 보면 성사 인원은 증가했으나 성사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2001년 10월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이산가족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현상으로 실질적 접촉성사는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주민접촉 승인, 성사 추이



<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단위: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70)	21(22)	-
1990	235(687)	206(652)	62(377)
1991	753(2,195)	685(2,047)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94(1,222)
1996	729(2,338)	692(2,029)	465(1,003)
1997	1,387(2,969)	1,340(2,850)	516(1,191)
1998	4,628(6,714)	4,567(6,623)	856(1,890)
1999	7,590(9,198)	7,616(8,890)	884(1,698)
2000	2,831(4,950)	2,812(4,899)	1,710(2,468)
2001	1,169(2,332)	1,145(2,283)	1,211(1,879)
2002	1,485(3,434)	1,453(3,367)	621(1,981)
계	25,165(45,160)	24,697(43,470)	7,873(17,295)

1998년에서 1999년간 북한주민 접촉신청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및 경제교류 성사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 등 당국간 협력이 개시됨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2년도 남한주민의 북한주민 접촉은 신청 1,485건(3,434명), 승인 1,453건(3,367명), 성사 621건(1,981명)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25,165건(45,160명), 승인 24,697건(43,470명), 성사 7,873건(17,2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2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은 경제분야 237건(390명), 사회문화분야 160건(702명), 대북지원 17건(50명), 이산가족 199건(266명), 기타 8건(573명) 등이다.

< 2002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단위:명)

구분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대북지원	기타	계
인원	266	390	702	50	573	1,981

나. 경제분야 접촉

경제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5,174건(11,589명), 승인 5,056건(11,311명), 성사 2,524건(4,221명)에 이르고 있다. 2002년에는 신청 781건(1,193명), 승인 763건(1,170명), 성사 237건(390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2002년도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은 정보기술(IT)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이징, 홍콩 등 제3국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촉은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의 방북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이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188건(607명), 승인 177건(576명), 성사 51건(171명)으로 집계되었다. 2002년에는 신청 7건(8명), 승인 4건(5명)으로 국내여행사 등이 주로 북한의 아리랑축전 참가 및 북한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 개발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사회문화분야 접촉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694건(4,427명), 승인 644건(3,775명), 성사 252건(2,400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도에는 신청 71건(312명), 승인 69건(310명), 성사 42건(262명)으로 성사 인원은 전년도 30건(102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남북간의 학술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중국지역 동포학자와 단체들의 대북 교류경험을 활용하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학술회의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2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한민족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 국제학술회의(10.17-18 선양), 21세기를 열어갈 아동교육 학술회의(5.30-6.1 옌지), 아태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TSR의 역할회의(7.24-25 블라디보스톡), 남북언어정보 표준화 회의(8.4-6 베이징), 21C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조건과 구상 학술회의(10.16-18 선양), 동아시아국가의 경제개발 워크샵(12.13 프놈펜), 남·북·중 여성학 학술회의(12.23-24 옌지) 등이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의 신청 510건(2,001명), 승인 454건(1,889명), 성사 166건(999명)으로 집계되었다. 2002년에는 신청 53건(150명), 승인 51건(145명), 성사 20건(39명)으로 전년에 비해 32% 감소하였다.

2002년도의 주요 접촉사례로는 금강산가극단 초청공연 추진, 3D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협의, 고구려 문화전 추진, 평양영화축전 작품출품 추진 등이 있다.

체육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285건(1,349명), 승인 272건(1,303명), 성사 108건(759명)이다. 2002년에는 신청 35건(194명), 승인 34건(192명), 성사 24건(147명)의 북한주민접촉이 이루어져 접촉 성사건수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다.

2002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공연(9.14-17 평양, 10.23-26 서울), 2002 남북 통일축구경기대회(9.5-8, 서울), 남북승마교류 추진, 남북태권도분야 학술교류 추진 등이 있다.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421건(2,077명), 승인 364건(1,924명), 성사 167건(1,222명)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신청 31건(188명), 승인 30건(186명), 성사 23건(143명)이 이루어져 2001년에 비해 접촉 성사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2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회의 참가(7.22-7.25), 조국통일기원 금강산기도회 개최 협의(4.2),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 작성 협의(3.14), 안중근의사 92주기기념 남북공동세미나 개최(4.29-5.1), 남북불교교류 협의(11.29),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개최협의(9.4), 제6차 아시아종교인 평화 자카르타회의 참가(6.24-28)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423건(1,142명), 승인 380건(1,041명), 성사 154건(486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신청 47건(102명), 승인 46건(101명), 성사 32건(64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2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일제종군위안부 관련 취재 협의, 남북방송문화교류 협의, 방송물제작 및 협력사업 협의, 북한 저작물 국내 출간 협의, 남북 통신사간 교류협의, 방북취재 및 언론출판교류 협의, 남북 기자교류 협의 등을 들 수 있다.

과학·환경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276건(1,028명), 승인 264건(1,005명), 성사 95건(402명)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신청 17건(63명), 승인 17건(63명), 성사 19건(47명)이 이루어져 접촉성사 인원은 전년도보다 3배이상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2002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생식물이용개발사업단 등에서 재일본 조선인과학기술협회의 제42차 과학기술보고대회(2002.7) 참가, 기상청의 제3차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의 참가(2002.12) 등을 들 수 있다.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제도화

가. 4개 경제협약서 및 분야별 합의서 체결

남북교류협력을 정치나 이념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로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은 공통의 법·제도적 기반 없이 각각의 법제와 민간 당사자간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두차례 경제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서를 타결하고 이에 가서명하였으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에 의해 2000년 12월 16일 정식 서명되었다.

남북경제협 4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

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측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중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합의서는 각각 후속조치를 위한 남북간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북간의 투자사업에 있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조약방식’ 발효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회의(2001. 5.22)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개 합의서안에 대한 체결동의안을 2001년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의안은 2002년 12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4개 경협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공동규범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4개 합의서가 발효되면 남북경제협력은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협 4개 합의서 체결·발효를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제도화는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개발 및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타결되어 서명본을 교환하였으며,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는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통관·검역·통신합의서가 타결되어 서명본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28일에는 「남과 북 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 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해운합의서」가 타결·가서명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간 통행, 원산지 확인절차,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등의 세부합의서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법적·제도적 단계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4개 합의서의 발효 및 관련 후속조치와 남북경제 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나. 남북경제협의 제도화 추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회의(2002.11.6~11.9)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12월 11일부터 13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4개 경제협합의서의 후속조치 마련과 통행, 원산지 확인 합의서, 산업표준 및 산업재산권 문제 등 남북경제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충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원산지 확인문제 등 일부사항은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제1차 회의는 남북간 경제협추진의 제도화를 위한 대화틀을 본격 가동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쌍방은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북경제협사업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보다 기술적·실무적 사항을 협의해 나가는 실무협의회가 남북회담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해운협력 분야의 합의서는 단순한 합의의 차원을 넘어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행, 산업표준, 산업재산권 등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여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맞도록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관한규정」 등 5개의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교류협력 관련 규제의 70%를 정비하여 민간기업·단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당시 총 규제 40건 중 14건을 폐지하고 15건의 내용을 개선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 신청서류 중 환경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위탁가공용 물품의 반출·반입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외국인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험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SOC 확충지원 등으로 인한 남북경협 확대와 기업의 경험 자금 수요 증대에 따라 2000년 11월 대출비율, 대출조건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하였다.

2001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방문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수시방북절차를 간소화하였

으며, 접촉 및 방북결과보고서의 제출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 북한주민접촉에 있어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포괄적인 접촉승인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협력사업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2001년 12월에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2개 지침과 남북간 선박은행 및 교역과 관련한 2개 고시를 제·개정하였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은 시중금리의 하향 추세, 남북경협의 불확실성, 경협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은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기금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를 반출승인품목에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도서’로만 규정되어 있던 대상품목을 전자우편, 전자출판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으며, 국내외 농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반입제한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남북한간선박은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을 통해 남북한간 선박의 안정적 운항을 도모하고, 국적선사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선박은행승인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2001년 10월 이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되어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원 발의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인사의 참여,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사용시 국회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정부부처간의 협의기구이고 정당추천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2001년부터 기금집행에 대한 사전보고를 충실히 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과 실익은 적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원입법 추진 취지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02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시행규칙」의 개정(2002.3.4)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의 절차 간소화에 따르는 수시북한방문신고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및 북한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문안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법률과 하위법령의 체계를 완비하고, 투명성 있는 절차와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002년 1월 금강산 관광지속을 위한 정부지원방침을 발표한 이래,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강산관광객에 대한경비지원지침」을 통일부고시로 제정(2002.3.28)하였다.

또한, 물품의 반출·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2002.10.24)하였다. 반입물품으로서 제3국 경유화물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원자재를 반출하고 생산된 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물품 및 사전에 승인을 득한 협력사업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여 위탁가공교역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법령·고시에서 신고대상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과 남북 당국간 회담 등에 필요한 물품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품목」으로 지정하여 반출·입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가.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기타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2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1조 6,250억원, 민간출연금 22억원, 운용수익금 2,44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 2,197억원, 기타수입금 15억원 등 총 3조 925억원이 조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1998~1999년)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1,00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2000.6)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출연금 규모가 대폭 확충되어 2001년도에 5,000억원, 2002년도에 4,900억원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출연금은 2002년까지 22억원에 이른다. 특히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2000년에 6억원, 2001년에는 11억원이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한 침목기증 용도 등으로 출연되기도 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등	공자예수금*	계
1991	25,000	-	237	-	25,237
1992	40,000	-	5,118	-	45,118
1993	40,000	3	4,778	-	44,781
1994	40,000	1	9,386	-	49,387
1995	240,000	119	14,589	-	254,708
1996	100,000	132	18,410	-	118,542
1997	50,000	288	27,873	-	78,161
1998	-	-	40,280	-	40,280
1999	-	3	23,013	149,831	172,847
2000	100,000	541	30,393	254,852	385,786
2001	500,000	1,080	29,406	310,000	840,488
2002	490,000	78	42,035	505,000	840,488
계	1,625,000	2,245	245,518	1,219,683	3,092,446

*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나.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 북한에 쌀 15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기금집행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경수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용역비로 49억원을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675억원을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 톤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160억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6.5만 톤을 지원하는 데 179억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2000년에는 경수로 본공사 착공에 따른 경수로사업 대출 3,259억원,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식량차관 867억원, 비료 30만톤 지원에 944억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146억원, 남북 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및 평양교예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지원에 23억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에 23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2001년도 기금집행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료 20만톤 지원사업에 639억원, 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으로 190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899억원, 제2차, 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9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8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4억원, 6.15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 경비지원에 3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KEDO 경수로사업 대출 2,555억원, 경험추진기업에 대해 경험자금 대출 450억원, 교역자금 대출 11억원 등 총 5,54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2002년도 기금집행은 대통령 특사 방북(4.3~4.6) 이후 남북간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금이 지원되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비료 30만톤 지원사업에 833억원, 식량차관(쌀 40만톤) 967억원, 자재·장비차관 306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260억원,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86억원, 제4차·5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14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54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5억원,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에 215억원, 제14회 부산아시안 게임 북한 참가 관련 지원에 14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KEDO 경수로사업 대출 3,009억원, 경험추진기업에 대한 경험자금 대출 358억원, 교역자금 대출 4억원 등 총 6,49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 연도별 · 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

(단위: 억원)

용도구분		'91~'97	'98	'99	2000	2001	2002	누계
주민왕래지원					2.8 (1)	2.5 (1)	236.9 (9)	242.2 (11)
사회문화협력사업지원			0.3 (1)		6.4 (1)	1.0 (1)		17.2 (5)
손실보조		12.7 (1)						12.7 (1)
반출입자금대출					5.0 (1)	10.8 (9)	3.9 (5)	19.7 (15)
경협사업자금대출						450.0 (1)	357.7 (3)	807.7 (3)
민족공동체회복지원		2,124.6 (10)	874.2 (5)	343.3 (3)	5,292.3 (20)	5,080.0 (34)	5,896.0 (46)	19,610.4 (82)
	무상	2,124.6 (10)	199.0 (4)	343.3 (3)	1,165.5 (18)	1,887.6 (32)	1,614.0 (43)	7,334.0 (77)
	대출		675.2 (1)		4,126.8 (2)	3,192.4 (2)	4,282.0 (3)	12,276.4 (5)
합 계		2,146.8 (13)	874.5 (6)	343.3 (3)	5,306.5 (23)	5,544.3 (46)	6,494.5 (63)	20,709.9 (117)

※ ()는 기금사업 건수

<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02.12.31 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금액
조성 및 지출	조성 (A)	정부출연	16,250
		민간출연	23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2,197
		운용수익	2,440
		기타수입금	15
		계	30,925
	지출 (B)	경상지원	7,606
		운용비용	1,408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상환	1,499
		계	10,513
순조성액(A-B)		20,412	
보유 자산	투자자산	대출잔액(C)	12,41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400
	유동자산	경수로계정	348
		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	6,245
	보유자산액(현보유자금*)		20,412(7,993)

* 현보유자금 7,993억원 = 조성액(A) 30,925억원 - 사용액(B+C) 22,932억원

다. 기금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기금집행 내역의 추이를 보면,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1999년까지는 기금을 비료, 식량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5호의 ‘민족공동체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하여 왔다. 일반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 등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사업지원 이외에 인적왕래와 사회문화 협력사업에도 기금지원을 확대하여 13건에 250억원을 집행하였다.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8건에 827억원을 대출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자금도 사용범위가 늘어나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식량차관 및 자재·장비차관 제공, 비료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 이외에도 남북한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남북자원개발협력사업 등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있다. 이는 2000년말 국회의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의결시 부대의견에 따른 것으로, 2001년 1월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 대북 동내의 지원사업까지 총 23건, 8,388억원의 승인사업에 대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다.

정부는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2001.12)을 통해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지원에 있어서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2002.12)하여 대출제도 간소화, 대출이자율 인하, 신용대출요건 완화 등 민간기업의 대북경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농림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원 차장으로 구성되며 안전에 따라 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관련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을 그 기능으로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 협의회 운영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협의회는 주요 대북정책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여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절차에관한고시」,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을 의결하였다.

2002년도에는 총 20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37건의 안전을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1998년 8회, 1999년 12회, 2000년 13회, 2001년 13회 개최 등 남북교류협력 진전에 따라 협의회개최 횟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02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

회차	일 자	안	
		의안번호	의 안
89	'02.1.22	158 159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대북경협기업(국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90	'02.1.28	160	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91	'02.1.31	161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 승인
92	'02.2.25	162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93	'02.3.19	163	WHO를 통한 대북말라리아 방역지원 관련 기금지원
94	'02.3.21	164 165 166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남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95	'02.4.18	167 168	대북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96	'02.4.29	169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97	'02.4.25	170	이산가족 상봉행사등 통신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98	'02.5.31	171 172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이산가족 교류주선 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99	'02.7.8	173	대북 교역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100	'02.8.14	174 175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101	'02.9.7	176 177 178 179	대북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비료 10만톤 추가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 제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기금 지원 대북 교역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102	'02.9.17	180 181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 대북자재·장비차관 제공을 위한 기금 지원
103	'02.10.11	182 183 184	북한선수단·응원단의 부산AG참가에 따른 기금 지원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대북 교역기업(대원상사)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04	'02.10.31	185 186	대북 교역기업(동경종합상사)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대북 교역기업(대동무역)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05	'02.10.28	187	북한경제시찰단 방문에 따른 기금 지원
106	'02.12.4	188 189 190	대북 동내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8.15민족통일대회에 대한 기금 지원 대북 교역기업(조성종합)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07	'02.12.14	191	대북 교역기업(동경종합상사)에 대한 기금대출 승인
108	'02.12.31	192 193 194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 2002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에 대한 기금 지원 남북철도·도로연결 관련 대북자재·장비제공현황(보고)